

“월급 빼고 다 올라”...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외식 힘들어

올해 외식물가 상승률 6% 기록...3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고물가 장기화에 생산비 등 올라...시름 달래던 주류도 가격 인상

소득은 제자리를 걷는 가운데 외식물가가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먹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주·맥주 등 주류 판매가도 크게 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물가지수는 118.96으로 전년 대비 0.61%포인트 올랐고, 전월에 견줘서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외식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 12월(100.54) 이후 36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외식물가 상승률은 올해 6%가량 오르면서 전년(7.7%)과 더불어 2년 연속 6%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4년(6.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된 수치다.

반면,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해 재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쉽사리 판매가를 낮추지 어려워

실정이다.

나주시 송월동의 한 백반집은 지난 3년 간 가격 인상이 없던 음식을 판매하면서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를 책임져왔지만, 지난해 11월 누적된 적자 장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대표 메뉴였던 돼지갈치찌개 백반은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고, 돈을 받지 않던 공기밥 역시 5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백반집 사장 60대 김 모씨는 “외식하는 손님이 없어 주변인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코로나19 때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고물가로 인해 재료값부터 가게운영비,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민의 시름을 달래주던 소주 등 주류 역시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외식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배 가까이 상회했다.

지난해 소주 외식물가 상승률은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2.6%)의 2.8배 높았다.

소주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6년 11.7%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맥주 외식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대비 6.9% 상승해 지난 1998년(9.7%)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주류 외식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는 것은 지난해 주류업체들의 맥주와 소주 가격 인상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10곳을 돌아본 결과, 소주와 맥주를 1병 당 4000에 판매하는 음식점보다 5000~ 6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더 많았다.

주말을 맞아 친구를 만난 이시형(33)씨는 “불과 3년전만 해도 소주는 3000~4000원이었는데 너무 비싸진 것 같다”면서도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장님도 오죽했으면 이 가격에 팔겠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와 진행 취약·소외계층에 320박스 전달

농협광주본부는 23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청에서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주관하고 농협광주본부가 후원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병구 광산구청 구청장,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한제구 우리농업지킴이

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떡국떡(2kg) 320박스를 광산구청에 전달했다.

한제구 본부장은 “명절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떡국떡 나눔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힘든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전국 농협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단체로, 취약계층 및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공명선거·윤리경영 실천 청렴 농협으로”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결의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실천 결의대회 개최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국회의원 및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

석한 임직원 40여명은 국민·농업인·임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청렴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역할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올해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임직원 선거권여 금지, 공직선거법과 농협법 등 관련법령 및 제규정 준수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임직원 개개인이 농협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3행(정령, 소동, 배려), 3무(사고, 갑질, 성희롱)’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로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임직원들이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갖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안전의무 준수 등 재해 예방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23일 ‘2024년 영·섬유역본부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 본부장과 영·섬유역본부 유역 내 전 부서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해를 맞

아 청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실천해 물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영·섬유역본부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유역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안전의무 준수, 작업수칙 준수 등 다양한 안

전활동을 추진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본부장은 “청렴과 안전은 공직자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본부장과 부서장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대형마트 설 선물 구매 최대 40% 할인

2월 9일까지 상품권 증정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2월 9일까지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은행 KJ카드와 함께하는 설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든 지점에서 광주은행 KJ카드로 설날 선물 세트를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혜택 또는 금액대 별 5%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는 선물세트 구입 금액에 대해 2-5개월까지 무이자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Wa(와)뱅크 앱,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선물세트를 구매할 해당 마트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준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각각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신보, 4년 연속 ‘소상공인 재기지원 우수기관’ 선정

장기연체자 660명 빚 탕감 등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이강근, 이하 ‘전남신보’)이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기지원 우수재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재기지원 우수재단 선정’은 매년 전국 17개 지역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창업·제도전을 위한 ▲채권소각 ▲교육·컨설팅 ▲보증 지원 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전남신보는 지난해 부실채권 72억원을 소각하며 장기연체자 660명의 빚을 탕감해주었고, 재기

지원 교육 및 컨설팅과 운영자금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도왔다.

특히 보증지원 부문에서는 제도전지원·재창업 특례보증 공금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전국 두 번째 규모인 123억원을 지원하며 487개 업체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23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은 찬성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8.61 (+14.26)	↑ 금리(국고채 3년)	3.286 (+0.008)
↑ 코스닥	840.11 (+0.42)	↓ 환율(USD)	1333.40 (-5.50)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